

“치과의사 인턴제 폐지 바람직” 치의전문의를제시행위 공청회

치과의사 인턴제도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모아졌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를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이수구)는 지난 10월 6일 치협회관에서 '치과의사 인턴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치과의사 인턴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20일 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가 인턴제도 폐지를 결의함에 따라 치과계의 여론을 청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치협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장기택 학술이사가 기조발표를 통해 “인턴제도를 한시적인 저임금 고급인력으로서의 필요성으로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며, 졸업 후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바로 레지던트 과정을 선택해 책임있는 수련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인턴과정을 발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밝히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토론자로 송헌철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치과 교수, 양수남 제주 한국병원 치과 과장, 오희균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이재봉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철과 교수

가 나서 인턴제 폐지 의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토론자들이 치의전문 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함께 비치대수련 치과병원의 퇴출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토로하면서 인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재봉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인턴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사견을 전제하고 “그러나 치과병원협회의 입장에서 피력할 때 현행 인턴제도는 폐지할 수 없다”고 방어적인 입장을 밝혀 치병협이 인턴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공청회는 인턴제도 폐지를 주제로 했으나 참석자들은 인턴제 폐지를 직업적인 문제로 간주하면서 전문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피력했다.

한편 이수구 부회장은 안성모 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면서 “치협에서는 전문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주의깊게 경청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치협 종합학술대회 6월 15~17일 정기이사회 개최

치협 제46회 종합학술대회 일정이 2007년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로 최종 변경됐다.

치협은 지난 10월 18일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기타 보고사항과 토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2007년도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46회 종합학술대회 일정을 한 달여 미뤄 6월15일(금)부터 17일(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 같은 일정 변경은 (가칭)대한심미치과과학회의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이와 중복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종률 위원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위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홍예표 위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이와 함께 위원 추가 선임 문제는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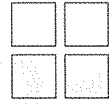
당 위원회에 일임기로 했다.

또 대전지부에서 상정한 기공소지도치과의사 세칙은 이를 신중히 검토,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기로 했으며 치과의사 윤리지침 제정의 건은 법제·치무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해 제정기로 했다.

또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한 '일차치과의사 수련제도'(가칭)에 대해서는 전문의시행위원회에서 제도의 방향과 명칭 확정 등의 업무를 전담기로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회의에 앞서 “각 위원회별로 회무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 회원들을 위해 회무 수행에 노력해 달라”며 “다음달 중 실시될 회무 감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기 이사회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스마트카드’ 본격 추진된다 치협·치과신협협의회 업무 제휴 조인식

치협과 전국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협의회(회장 강봉기·이하 전치협)가 스마트카드 관련, 업무조인식을 체결함에 따라 스마트카드 발급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치협과 전치협은 지난 10월 19일 안성모 협회장과 강봉기 전치협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카드 조인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스마트카드 중 신용카드 부분을 전치협에 일임 한 후 카드사 선정 문제 등으로 2년여 시간을 소요하는 등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치협에서 여러 카드사와 협상한 끝에 지난 3월 신한카드사와 최종 업무체결을 한 바 있다.

카드사가 최종선정 됨에 따라 치협과 전치협은 치협 회원 스마트카드 사업을 진행키 위한 적극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19일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발행되는 치협 회원 스마트카드는 치협 회원 인증카드로 먼저, 회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회비납부, 보수교육 이수 등의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신용카드 기능과 금융 서비스, 신협 업무가 가능하며 카드사 영역, 치협 영역, 신협 영역 등이 구분돼 타 구획운영자가 열람이나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차단 시켰다.

스마트카드는 오는 10월말부터 치협 회원 스마트카드 신청서를 각 지역별로 배부하고, 신청서 접수를 11월 중순부터 실시, 카드발급은 12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협회장은 “어려웠던 문제를 잘 해결해 준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와 전치협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스마트카드가 원활하게 발급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협회 주요현안 상호협력 약속” 치협·치기협, 회장단·임원진 간담회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근·이하 치기협) 회장단 및 임원진이 함께 모여 양 협회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양 단체는 지난 10월 19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중식당에서 회장단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치과기공사 인력감축 ▲기공료 문제 ▲지도치과의사제도 등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김영근 회장을 비롯한 치기협 회장단 및 이사진이 치협을 방문한 이래, 5개월여 만이며 양 협회 회장단 및 이사진이 함께 모인 것은 안성모 집행부 출범이후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안성모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협과 치기협이 차분히 논의해서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양 협회가 함께 논의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김영근 회장은 “치협과 치기협은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라며 “양 협회가 (현안에 대해)마찰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치기공과의 입학정원 감축 등 전체 치과기공사들의 인력과잉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영근 회장은 “현재 치과기공사 인력 수급과 관련 치기공과 정원 감축에 대한 건의를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치기공과 정원이 감축되지 않으면 향후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치과기공사들이 과다 배출돼 난립하는 것은 치과의사들도 결코 바라지 않는 일이다. 구강보건정책을 위해서도 이는 동결 혹은 감축돼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기공료 문제와 인력 감축의 경우 앞으로도 양 협회가 철저히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협회는 다음달 중으로 다시 한번 간담회를 마련해 관련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측에서 안성모 협회장, 이수구·김동기·김재영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치기협측에서 김영근 협회장, 김규현·안왕현·송준관 부회장, 주희중 법제이사 등이 배석했다.